

광주시, '2045년 탄소중립' 속도 낸다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10개년 기본계획' 확정 2028년까지 3조6천341억 투입 11개 분야 128개 사업 추진

광주시가 2028년까지 3조6천341억 원을 투입해 건축물 녹색설계, 친환경차 전환,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

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했다.

광주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조6천3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 ▲수송 ▲산업 ▲폐기물 ▲농축산 ▲수송 ▲전환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이행기반 협력 ▲교육소통 등 11개 부문 12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건설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목표로 신축 건물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 적용 확대, 기존 건

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사용 효율화 향상 등 3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과 그린 모빌리티 전환을 목표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버스 전용차로 운영 강화, 자전거도로 정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19개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 부문은 첨단산업과 첨단3지구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RE100 전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과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기업탄소액션' 자발적 감축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녹색성장 부문은 탄소중립 시대 지

속가능한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해 미래차 산업을 시한다.

정의로운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위기 업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탄소중립 미래 기술 지원, 인재 육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행 기반·협력, 교육소통 부문은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모든 시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16개 사업을 진행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정부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이 목표"라며 "재정 투입과 행정의 열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의지가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시장이 중심이 돼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557억 규모 기업 투자협약

광양·영광·영암·강진에 식품제조 등 4개사

전남도는 23일 "영광군·강진군·영암군·광양시 등 4개 시·군과 협력해 식품제조업 등 4개 기업과 557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97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투자협약에 따라 금호폴리켐(주)은 광양 황금산업단지에 358억원을 투자해 합성고무 제품을 보관할 물류 창고를 건설할 계획이다. 판매 제품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만큼 충분한 출하 공간 확보와 선진화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가온누리는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133억원을 투자해 과제

주스, 액상차 등의 제조 공장을 신설한다.

케이씨씨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43억원을 들여 성토용 골재, 위생매립장 복제 생산 공장을 증설한다.

(유)조은산업은 강진일반산업단지에 23억원을 투자해 꽃소금 생산 공장을 만들 계획이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최근 전남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기업이 신규 증설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협약 기업을 잘 정착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제도 기간 1년 연장

광주시, 내년 5월까지...계약 30일내 신고 의무는 유지

광주시는 23일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제도 기간을 2024년 5월31일에서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1일부터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 제도 기간을 운영했다.

제도 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

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 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제도 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송희중 토지정보과장은 "제도 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 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2024년 상반기 남구 통일효도열차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민들이 2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날 통일효도열차는 광주 남구 효천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 최북단인 도라산역에 도착했다. <광주·전남사건기자단>

전남도,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우수'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서 우수 지자체상 수상

전남도가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4년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Y-FARM)'에서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2024년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는 지난 21일까지 3일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농

협중앙회 주최로 개최됐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보 제공과 미래 농업기술 공유를 위한 박람회에는 전국 73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 관련 30개 기관 및 기업이 참가해 최근 청년농업인에게 각광받는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미래 새로운 농업기술을 선보였다.

전남도는 박람회 개막식에서 그동안 추진한 정책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전남도는 17개 시·군과 함께 전남도관 통합부스를 운영,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어울림마을 조성 ▲우수 창업활성화 등 전남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일에는 전남만의 우수한 정책과 아

름다운 자연경관 등을 소개하는 '전남도 귀농귀촌 설명회'를 개최, 324명이 전남도관 부스를 찾아 귀농귀촌 상담을 요청하는 등 도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전남도는 2023년 총 13회의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1천200명의 도시민에게 맞춤형 귀농귀촌 홍보 및 상담을 제공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의 우수한 정책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반영될 바란다"며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전남도의 매력을 알리고, 전남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도, '재난 안심 꾸러미' 사업 확대

산불·산사태 위주→모든 재난 지원

전남도는 23일 "올해부터 선제적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비해 도민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재난 안심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의 우수한 정책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반영될 바란다"며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전남도의 매력을 알리고, 전남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또한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도민 대피는 물론, 대피하는 동안 도민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 모색을 지시함에 따라 모든 재난으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난 안심 꾸러미는 치약·칫솔 세트, 물티슈, 즉석밥, 컵라면, 다과류 등 15종으로 구성됐다. 재난 발생 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 대피한 도민을 대상으로 1인 1꾸러미를 현장 지급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생활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 50%급매 임동 더현대쇼핑몰인근대로변 대지318㎡ 5층528㎡ 승강기1 주차6대 급매7억1,800
- 화순 도곡 원화리 6차선도로변메인 계획관리 5,500㎡ 분할가능(시세50% 급처분)
- 전일빌딩인접 중심상업지 코너 빌딩 대지804㎡ 7층5,300㎡ 승강기1 주차40 유동인구엄청 급처분68억(유자45억포함)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장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